프리미엄 맥주 출시 잇따라

metro

아비걸스 서울·부산서 공연

코스피 시가 총액

한달 반 새 20조원 불어나

원화 1020원선 위협…

채권값도 이례적 상승

트리플 강세…경제 훈풍 분다

한국경제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미국 경기의 회복세, 중국 성장정책 추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주가·원화·채권이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뛰고 있다. '코스피지수 2400' 돌파라는 한국 증시의 오랜 숙원도 이번 기회에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9일 2015.14로 연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펀드 환매 물량 부담에 이날엔 23.33포인트(0.15%) 내린 2008.33으로 엿새 만에 다시 2000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수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 예전처럼 쉽사리 1990선으로 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강세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주가 호조를 보이고 여기에 많이 연동되는 주세를 보인다"며 "선물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단기적인 강세는 좋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상승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분기 말 1182조4860억원에서 이날 1203조9260억원으로 1개월 보름여 만에 21조4380억원 증가했다.

원화 가치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한 하락 국면(원화 가치 강세)에 접어들었다. 올 들어 원화 가치는 3% 넘게 올라 지난 7일에는 5년 9개월 만의 최저 수준인 1020원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특히 1분기 말(1064.7원) 대비 절상폭은 4.1%로 신흥국 통화 중에서 가장 높았다.

개성공단 다녀온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방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주식과 외환시장의 더블 약진은 경기회복기에 곧잘 나타나지만 이번엔 채권시장까지 강세 행렬에 동참했다.

주가가 오르는데도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채권금리 하락)은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주식 하락 장세에서 채권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주가와 채권이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동조화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국면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종합팀장은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 변곡점에서 주가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동조화는 오는 9~10월쯤 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 세계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 연방준비은행장들은 연달아 오는 10월이나 늦어도 12월에 양적완화를 마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올해 주식시장을 밝게 내다본 전망치를 내놨다. 수년간 박스권을 뚫고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대신증권 등 증권사 5곳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100~2400으로 제시했다.

증권사별 예상 고점은 대신증권 2400, 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 2200, 한국투자증권 2150, 삼성증권 2100 등의 순이다.

증권사들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와 이익 증가, 미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의 성장정책 추진 등을 기대 요인으로 꼽았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미 양적완화 종료 후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코스피는 5% 안팎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오는 4분기부터는 기업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나 반등 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illegible]

울산 1억 연봉자 7% 서울 2배, 제주의 7배

울산에 사는 직장인 약 7%의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시도별 총급여 1억원 이상 근로자 현황'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울산 근로자는 3만250명이다. 울산 전체 임금근로자의 6.88%다. 울산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위 서울(3.41%)의 2배에 가깝고, 꼴찌인 제주(0.89%)의 7배가 넘는 수준이다.

울산과 서울, 경기(2.46%)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16개 시도 평균(2.35%)보다 높다. 반면 제주, 충북, 강원 지역은 총급여가 1억원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1%를 밑돌았다. 서울·경기는 인구가 많아 억대 연봉자 수는 10만명이 넘었지만 비율로는 울산에 못 미쳤다.

이노근 의원은 "지나친 지역간 경제 격차는 우리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영기자 [illegible]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시작

세월호 참사 최대 변수… 여야,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22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뒤숭숭한 민심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와 함께 이번 선거의 판도를 결정지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공약은 후보들의 필수 공약이 됐다.

새누리당은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전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식 선거전 동안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총리 후보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에 걸친 이른바 '인적쇄신'이 꼽힌다.

전면적인 인적쇄신은 야당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서더라도 그 시기와 폭, 방향 등에 따라 민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놓은 국가안전처 신설이나 진상조사위원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도입 등 각종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되느냐도 유권자들의 막바지 선택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투표 무관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른바 '심판론' 쪽으로 연결되면서 젊은층과 야당 성향 지지자들은 대거 투표장으로 이끌지 주목된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방통위 또 파행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석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지연되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등과 만나 세월호 현안조의를 위한 개회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층수 전쟁, 경제논리 앞서 안전을

기자 수첩

박선옥 (경제산업부 기자)

바야흐로 층수 전쟁이 한창이다. 발표되는 각종 개발계획에는 어김없이 초고층 랜드마크빌딩이 포함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도 높이 경쟁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리모델링을 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법규도 완화됐다.

땅덩어리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건물 층수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높게 짓아 올리는 게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경제논리로 층수에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고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만 하더라도 안전점검 전문기관 점검 결과 수백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인 이유로 애초 예정했던 5월 저층부분 조기개장을 강행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마찬가지다. 업계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기존 아파트에서 층수를 높이더라도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제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건축비를 아끼는 순간 얘기가 달라진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집·직장·학교 등을 짓는 건설업은 특히 사람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건설업계 스스로 경제논리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분주한 선관위 6·4 지방선거를 14일 앞둔 21일 오후 서울 와룡동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접수된 후보자 선거 벽보를 검수하고 있다. 공식 선거전은 22일부터 시작됐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자금지원 음식·도소매업 확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특별자금 지원이 음식·도소매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기존 여행·운송·숙박업종에 한정된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대상을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 확대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 공연예술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와 진도군 소재 요식업계에 대해선 신·기보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정연술기자 mike@

염수정 추기경 개성공단 첫 방문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1일 개성공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염 추기경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서울 명동 서울대교구청을 떠나 동료 방북단과 함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로 향했다.

염 추기경을 비롯해 신부 6명과 서울대교구 관계자 2명 등 8명으로 꾸려진 방북단은 레저용 승용차 2대에 나눠 타고 오전 7시20분께 통일대교를 건너 남북출입사무소 쪽으로 들어갔다.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오늘 방북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에서 일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는 사목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염 추기경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둘러보고 남한 기업의 신자들을 위로하며 간단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조현정기자

금수원 수색, 유병언 체포 실패

검찰, '비밀별장' CCTV 저장장치·8박스 분량 압수물 확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수색했다.

하지만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의 구인영장과 장남 대균(44)씨의 체포영장에 더해 법원으로부터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이날 정오께 집행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관 70여 명이 수색작업을 하는 동안 외곽에는 경찰 500여 명이 배치돼 도주로를 차단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경찰 700여 명도 대기했다.

검찰은 유씨가 사진작업을 했던 스튜디오와 강당, 수련원 등 금수원 내부에서 8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또 유씨가 한때 머물렀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금수원 인근 호미영농조합의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부자가 이미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과 경찰 검거팀 인력을 확대했다.

한편 검·경찰의 강제진입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채 대치해오던 구원파는 이날 오전 금수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더위 피해 고궁으로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오후 서울 와룡동 창경궁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 논에 떨어진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연합뉴스

美전투기 연료탱크 논에 떨어져 '아찔'

21일 오전 11시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진봉초등학교 인근에 떨어진 기름통 추정 물체 2개가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의 보조 연료탱크 2개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료탱크 2개가 진봉초등학교에서 200m 거리의 논에 떨어져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 보조 연료탱크는 성인 남성보다 큰 2m 크기로 전투기 날개 맨 끝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전투기 운행 중 응급상황이 생겨 매뉴얼에 따라 보조 연료탱크를 떨어뜨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상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송국빈 '다판다' 대표 151억 횡령 기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대표의 범죄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우선 유씨,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500만원씩 총 5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대표, 유씨의 장남 대균씨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000만원 가량을 대균씨에게 지급했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대균씨와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매달 700만원, 총 5억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000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유씨의 사진 14점을 3억2000만원(점당 2200만원 상당)에 매입한 정황도 있다. /황재용기자 mjk.mj

민간잠수사 5명 추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수중 수색을 위한 민간 잠수사 5명이 추가 투입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1일 오전 "신규 동원된 민간 잠수사 5명에 대해 지난 20일 신체검사를 마치고 DS 바지선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미래호 바지선과 민간잠수사 13명이 지난 15일 철수한 이후 대체 투입된 DS 바지선에는 현재 총 16명의 잠수사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으며 철수한 팀이 맡았던 4층 선미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대책본부는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123명을 대기시켜 3층 중앙부, 4층 중앙 좌측 통로와 선미 다인실, 5층 선수 객실을 수색했다.

/윤다혜기자

22일 공식 개통하는 부산항대교 야경 모습 /영도구 제공

부산항대교 개통… 원도심 상권 부활 기대

부산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청학동을 잇는 부산항대교 개통이 지역 유통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부산항대교 개통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점포로 부산원도심(중구)의 롯데 광복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안순환도로망' 완성이라는 부산 내 교통개선이 완성되면 원도심으로 고객 유입이 크게 늘 것이라는 게 지역 유통업계의 분석인 것.

이 같은 예상은 '광안대교'가 해운대구와 남·수영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등장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듯이 부산항대교 개통은 영도구와 중·서구 등 원도심 부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항대교'를 이용하면 해운대에서 영도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기존 도심통과로 평균 1시간가량 소요됐던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영도구와 중·서구 보다 해운대구와 남·수영구 인구가 3배 이상 많은 점도 이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롯데백화점 자체 분석에서도 지난해 롯데 광복점을 이용한 고객은 3년전인 2010년과 비교해 16% 상승한 반면, 교통이 불편한 동부산지역 3곳의 쇼핑객은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하균기자

부산항대교 교통정보서비스

부산시는 23일부터 개통되는 부산항대교의 교통정보서비스를 개시한다.

교통정보서비스는 부산항대교와 연계를 통해 수집한 CCTV 영상정보와 도로소통정보로써 시민 누구나 모바일 앱(부산교통정보), 센터 홈페이지(its.busan.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산항대교 뿐만 아니라 도시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정보, 공사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트위터 가입자는 센터 운영 트위터(계정 BUSANTIC)에 팔로우를 신청하면 트위터를 통해서도 교통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하균기자

모바일 앱 개발 창업자금 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부산 모바일 앱 개발 창업 자금 지원 사업"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모바일 앱 기획·개발 능력을 가진 부산지역 모바일 앱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과제당 최대 500만원으로 11개사를 모집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심사평가에 통과되면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앱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및 SK플래닛 전문 멘토단과 연계된 모바일 앱 전문 멘토링 지원과 국내 전문 전시회 참가(G-STAR, IT EXPO BUSAN) 기회도 제공 받는다.

신청기간은 지난 1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장하균기자

'부산을 해양금융 메카로' 종합센터 설립 등 본격화

부산을 해양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본격화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은 21일 오후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단지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해양금융종합센터 현지 준비반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통합해 오는 9월 문현금융단지 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설립된다.

이 센터는 통합되는 3개 기관의 기존 인력을 배 이상 확대한 100명 수준으로 출범한다. /연합뉴스

주거환경 정비 속도낸다

시, 타당성 검토…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도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및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1년 1월에 수립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지정 후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사업성 부족,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지역 현황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공동체 관리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역 커뮤니티도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통근·통학·쇼핑·여가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지역을 단위로 생활권을 구분한다.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지의 정비·보존·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와 생활권을 고려한 광역적 주거지 정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용역 착수이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군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며, 용역은 내년 5월말 경 완료될 예정이다. /장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신발 완제품 국제공인인증제 첫 도입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신발 완제품의 국제공인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신발완제품 인증시험 모습 /연합뉴스

와인 전문 디렉터와 함께하는 마리아주

롯데호텔부산 라세느 내일 디너 행사 개최

롯데호텔부산 라세느는 23일 호텔 1층 야외 파티오에서 700년 전통의 와이너리 프레스코발디사와 함께 와인 메이커스 디너 행사를 연다.

이탈리아의 프레스코발디사는 오랫동안 영국 왕실 및 유럽 귀족들에게 와인을 납품해 유럽에서 그 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30대에 걸친 가족 경영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프레스코발디사의 전문 와인 디렉터 피에르루이지 줄리오가 자리해 특별히 선정된 6종의 와인과 함께 구성된 특선 코스에 대해 설명한다.

사전 예약제인 이번 행사는 오후 6시 30분 칵테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말린 꽃 향기와 함께 살짝 감도는 초콜릿 향이 특징인 니포자노 리제르바, 풍부한 과일향에 블랙체리의 풍미가 더해진 아미라그릴라, 다채로운 맛으로 길게 이어지는 피니쉬가 매력적인 카스텔지오콘도 리제르바 등이 제공된다.

살치살 구이를 메인으로 오리간 구이, 우럭 찜 등이 각 와인과 페어링 된다. 모든 코스에 전문 디렉터의 테이스팅 노트 설명이 곁들여 질 예정이라 와인 애호가들의 기대가 높다.

라세느 이심로 셰프는 "선정된 와인 6종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으로 코스를 구성하기 위해 고심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가장 조화로운 마리아주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및 예약 (051)810-6390 /장하균기자

모래의 마술 느껴보세요

'해운대 모래축제' 내달 6일 개막…전시·체험 위주 진행

부산 해운대구는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제10회 해운대 모래축제-세계모래조각전'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분위기로 이번 축제는 조용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대·거리 공연행사는 전면 취소되고 전시·관람·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특히 슬픔에 빠진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천사의 날개 모양 조형물에 사랑의 편지를 매다는 '모래가 전하는 희망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참여자들이 직접 노란 종이배에 적어 백사장에 꽂으며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 희망존'도 마련된다.

모래를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모래축제는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올해 주제를 '모래 정글 속으로'로 정했다.

해운대해수욕장 '모래복원사업'으로 두 배로 넓어진 백사장에서 참가자들은 모래 정글을 탐험하며 지구의 허파, 정글 보존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6개국 9명의 국내외 유명 모래 조각가들은 치타, 타잔, 사자, 기린, 악어 등 정글 속 동물들을 모래조각으로 표현했다.

축제 기간에 백사장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던 샌드 사파리로 변신할 예정이다.

'모래추억전'에서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변천 과정과 옛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이밖에 모래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보드를 타고 10m의 대형 모래언덕을 내려오는 '한여름의 샌드보드', 모래 정글 미로, 모래영화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다.

/정혁균기자 hk@metroseoul.co.kr

부산과기대 나이팅게일 선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기섭)는 지난 20일 오후 3시 대학 내 청운홀에서 '제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서식에서는 50명의 간호과 학생들이 참석해 전문 간호사로서 간호직에 헌신을 다할 것과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천장에 욱일기 연상 문양… 고증 없이 일본군 표지석 보존

'엉터리' 역사 시설물 전시한 시민공원

부산시가 최근 완공한 시민공원의 역사성을 살린다며 보존키로 한 일부 시설물이 정확한 고증도 거치지 않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천장에 그려진 문양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케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1년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세울 당시 공원 터가 가진 역사성을 살리는 노력의 하나로 12개 보존 시설물을 지정했다.

시민공원 터는 일본강점기에 수탈된 곳으로 해방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다가 2006년에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현장이다.

일제는 1930년 농민들의 논밭을 빼앗아 경마장을 지어 사용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 후에 전투용 말을 키우는 병참기지로 전환했고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동남아 지역 전장으로 보낼 일본군의 훈련과 야영지로 사용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의 첫 번째 부대가 주둔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이 철수하고 대신에 미국영사관과 유엔 산하 기관들이 사용하다가 6.25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미군 전투부대가 주둔한 이후 2006년 8월 부대가 재배치될 때까지 '한국 속 타국 땅'으로 남아있었다.

부산시는 이런 역사를 고려해 장교클럽, 컨셋막사, 학교, 극장, 경마장 매표소 등을 보존 대상 시설물로 선정했다.

부산시민공원역사관 천장에 일본 욱일승천기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20일 오전 촬영된 역사관 내부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본육군 상징석'과 '일본군 표지석'이 정확한 고증도 없이 보존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시민공원 보존유물 고증에 대한 연합뉴스의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서 "일본군제사를 전공한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일본군 상징석이 일본군과 관련이 있는 석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증이 안 됐음을 시인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일본 군사자료를 조사했을 때도 유사 석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묘지석으로도 추정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부산시조차 정체를 모르는 시설물을 역사적 자료로 포장해 시민에게 전시한 것이다.

두 시설물은 높이 40㎝가량의 석조물로 현재 공원 내 부전천 앞 잔디밭에 아무런 안내판 없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병수 시장 후보 매머드급 선대위 발족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박관용·김형오·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함된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히 서 후보와 당내경선 대결을 펼쳤던 박민식 의원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서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국회의장 3명을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김정훈·유기준·박민식 의원과 서의택 전 부산외국어대 총장, 이재호 변호사 등 5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선대위 고문격인 의장단에는 유흥수·홍인길 전 국회의원, 정문화·김기재·김영환 전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과 우병택·권영적·이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 이윤희 ㈜태금정 회장, 임정덕 부산대 명예교수, 김용환 ㈜보니건철 회장을 각각 위촉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핵심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신공항위원회(위원장 서의택 전 총장) ▲일자리위원회(이재윤 리노공업 대표) ▲시민경제위원회(임정덕 부산대 명예교수) ▲도시재생위원회(김민수 경성대 교수) ▲안전위원회(김준규 전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장) 등 11대 공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으로는 전용섭 전 부산mbc사장과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 안준태(사하을), 김희수(사하갑) 당협위원장 등 4인 공동 본부장 체제를 갖췄다.

서 후보는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을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는 게 저의 목표"라며 "선대위 구성도 이런 목표에 한걸음 씩 나아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정혁균기자

부산~오사카 오가는 카페리 스프링클러 누수 탓 2회 결항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대형 카페리인 팬스타드림호(2만 2000t) 정기검사에서 화물적재공간 스프링클러 이상이 발견됐다.

이상이 발견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 3일 정도가 걸리면서 해당 선박은 왕복 2차례 결항했다.

21일 선사인 ㈜팬스타라인닷컴에 따르면 이달 17일 한국선급이 진행한 선박 정기검사에서 화물을 싣는 공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 일부에서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됐다.

팬스타드림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수리조선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국선급은 누수가 발견된 부분을 수리하고 출항하도록 했다.

팬스타 측은 "한국선급 검사원의 보강작업 요청에 따라 수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결항기간이 늘어나 일부 승객 불편을 예상했지만 선박안전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수리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팬스타드림호는 18일부터 수리에 들어갔다.

선박 수리로 팬스타드림호는 18일 부산~오사카, 19일 오사카~부산, 20일 부산~오사카, 21일 오사카~부산 등 왕복 2회 결항했다.

선사 측은 18~19일 예약 승객에게 연락해 결항사실을 알리고 환불권과 대체 선박 승선권 등을 제공했다.

에너지절약 홍보대사 양성

부산시는 이달께 에너지 절약 홍보대사로 활동할 '부산 그린코디' 40명을 양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그린코디란 각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식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시는 2012년부터 3년째 그린코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등 4개 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는 4개 구에 거주하는 여성 40명을 모집해 에너지 사용, 저탄소 생활양식, 그린코디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거쳐 위촉할 계획이다.

1940년대 수영장 '명품' 변신

metro Paris

고급호텔 이미지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비키니가 등장한 1940년대에 만들어진 수영장이 다시 문을 연다.

파리 16구에 위치한 '몰리토' 수영장은 파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영장이었다. 수영장 주위를 둘러싸고 좁은 통로가 배치된 이색 디자인이 눈에 띄는 이곳은 위생 문제로 1989년 문을 닫아야 했다.

25년 뒤인 올해 몰리토는 2년간의 보수공사를 거쳐 수영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건물 구조는 예전 모습 그대로다. 보수공사를 맡은 담당자 뱅상 메자르는 "1929년 이 수영장을 설계했던 루시앙 폴레가 구상했던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몰리토 수영장은 예전의 대중적 이미지를 벗어나 고급 호텔 수영장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했다. 스파와 고급 레스토랑이 수영장 주변에 배치되며 하루 숙박비로 215 유로(약 30만원)를 사용하는 방문객에 한해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다.

/세실스 수트리 트뮈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맥주 가격 인상 월드컵 이후로

metro Brazil

Governo adia alta de imposto sobre cerveja

맥주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려던 브라질 정부가 여름 3개월 후로 연기했다. 당초 7월에 시행될 인상안을 10월로 미룬 것. 이는 월드컵 기간 동안 맥주 소비가 폭증하며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내려진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냉음료 산업(맥주 청량음료 등)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됐다. 회의 전 대표들은 20만 명 가량의 노동자 해고와 함께 증세 후 가격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가 미뤄지자 업계는 노동자 해고를 취소하고 고용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파울루=손동찬 인턴기자

美·EU "태국 쿠데타 아닐 것"

"약속 지켜라" 한 목소리…한국 교민 장사 안돼 울상

군부의 계엄령 선포로 태국의 정정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군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공언한 것을 믿는다며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군부가 일시적인 조치라고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태국 군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태국 군부가 쿠데타가 아닌 계엄령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기를 기대한다"며 "민주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과도정부가 제시한 조기 선거 일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대변인은 "태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EU는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해 왔고 민주적인 원칙을 존중한다"며 "조기 선거를 언제 실시할지 명확한 일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태국 군부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명목으로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대행은 새 총선일을 8월 3일로 정해 선거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방콕 시내 한인 상가들이 울상이다.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와 식당 등은 지난 3월 반정부 시위대가 방콕 시내 점거 시위를 중단해 매출 부진에서 다소 벗어났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잉락 친나왓 전 총리 해임으로 정국 위기가 깊어지면서 '제2의 불황'을 겪고 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기위 든 독일 총리 … 왜?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쇠네펠트 공항에서 개최된 '2014 국제 에어쇼' 개막식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초대형 모형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열대우림 보호비 1조? 콩고민주 장관 '돈' 요구

"열대 우림을 보호하고 싶으면 10억 달러(약 1조250억원)를 내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우림지역 보호를 명목으로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바본 음푸투 엘리마 민주콩고 환경장관은 "우림 지역이 우리보다 넓지 않은 인도네시아는 10억 달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2010년 노르웨이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삼림파괴를 중단하는 대신 10억 달러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민주콩고처럼 넓은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며 "여러 국가들이 공익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라이나생명
암보험 없는 61~80세를 위한
100세 보장
암보험!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코스닥
2008.33	545.59
(-2.93)	(+2.63)

금리	환율
2.84	1025.60
(-0.01)	(+0.50)

민소매 티 입으세요 여름 더위가 찾아온 21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민소매 티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동양사태 피해자 집단소송

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다음달 초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예비 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300여명이 서류를 냈다. /송병길기자 mrsong@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회 편집인	김홍현
편 집 국 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익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일 창간(등록번호 서울라00410)

이통3사 영업정지가 남긴 것…

알뜰폰 웃고 단말기값 내리고

20일을 기해 68일간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불법 보조금 에서 비롯된 이번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 일정은 업계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

◆최대 수혜자는 알뜰폰

21일 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68일간 이통3사 간 희비가 엇갈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알뜰폰 가입자는 43만6830명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9만3246명, KT는 4882명, LG유플러스는 2418명 각각 감소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동안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들에게 불법 보조금와 혜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으며 중저가폰,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영업재개와 함께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자 알뜰폰 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다소 반사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통신시장이 얼어붙어 예상보다 큰 성장은 나타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올해 알뜰폰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 윤곽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꿎은 제조사, 판매점 피해 가중

이번 영업정지 기간 결정적 타격을 입은 곳은 이통3사가 아닌 제조사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단말기 판매는 일평균 40% 감소했다. 이 같은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제조사와 유통점만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어느 제조사보다 피해가 컸다. 내수 시장에 전념한 팬택은 당초 1, 2월 단말기 판매량 확대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통3사 영업정지로 인해 3월부터 자작 어려움에 빠졌다.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의 최대 피해자는 팬택과 유통점이라고 말한다. 팬택뿐 아니라 유통점 역시 영업정지의 직격탄을 맞았다.

순차적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자 유치가 불가능 했던 영세 유통점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는 미래부에서도 인정했다. 미래부 측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3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업정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신의 물방울'은 이런 맛 21일 서울 강서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에서 열린 '제3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고 있다. 프랑스 농식품산림부(MAAF)가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0여명의 현직 소믈리에와 와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뉴시스

구본무 회장 경쟁력 점검

스마트폰 등 디자인 살펴봐

구본무 LG 회장이 21일 금천구 소재 LG전자 가산 R&D캠퍼스에서 향후 출시될 LG전자 신제품의 디자인 등 경쟁력을 점검했다. 구 회장 등 경영진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G3'를 비롯해 'LG G워치', 2015년형 울트라 HD TV 및 올레드 TV 등 모바일과 TV, 생활가전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에 출시될 60여개 주요 신제품과 부품 등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LG전자 구본준 부회장, 안승권 최고기술책임자(CTO), 하현회 HE사업본부장, 박종석 MC사업본부장, 조성진 HA사업본부장, 노환용 AE사업본부장 등을 비롯해 제품별 사업 책임자와 디자인연구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국기자 ksa@

외환·하나SK카드 연내 통합

7월 독립법인 출범… 3년간 고용보장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가 통합 조우기에 들어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를 분리하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 인·허가를 승인했다.

단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예비인·허가는 본인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인가를 내주겠다는 당국의 의사표시다.

이날 승인에 따라 외환은행은 22일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카드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나금융은 분사된 외환카드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존 카드 계열사인 하나SK카드와의 연내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통합되면 자산규모 4조 8000억원, 업계 점유율 7.8%의 10번째 전업계 카드사가 탄생하게 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오는 6월 말 본인가에 이어 7월1일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며 "250억원을 들여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의 반발을 우려해 외환카드로 옮기는 직원은 3년간 고용을 보장키로 했다. 하지만 외환은행과 하나SK카드 노조의 반발이 여전히 첨예한 상태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0일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은행과 카드 전산시스템을 완전하게 분리한 후 분사 승인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국은 외환카드 고객정보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심사나 검증도 없이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현주기자 sli***@metroseoul.co.kr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포럼 MOU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포럼단 발대식 행사에서 포럼단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참가기관 대표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KB 전산 교체 집안싸움

회장-은행장 평행선… 지휘체계 흔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심각한 내홍에 휘싸였다.

연초에 불거진 잇단 금융사고의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갈등까지 드러나 경영 지휘체계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거래시스템 교체를 두고 시작됐다. 국민은행은 최근 이사회에서 IBM 메인프레임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감사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병기 감사는 문제 소지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특검을 요청하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 회장은 "이번 건은 은행과 이사회 간의 문제이지 회장하고 행장 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은행장이 현명하게 이사회와 협의해서 잘 해결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산시스템 변경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결정을 위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텐데 그 결과를 갖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시스템 교체가 미뤄지더라도 내부감사 결과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행장은 "지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감독당국에 보고서가 올라가면 문제가 제기될 만한 부분이 발견돼 이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KB금융 내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국민은행에 이어 KB금융지주에 대한 특별 검사에도 돌입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이사회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은행검사국 인력을 투입해 국민은행에 대한 특검에 들어간 데 이어 20일부터는 KB금융지주에 대한 특검도 개시했다. /김민지기자 ***

햇 매실 맛보세요 21일 오전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햇 매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28일까지 전국 고객만족센터에서 담금주 및 장아찌 등으로 수요가 많은 '햇 매실(5kg/1박스)'을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1만5000원에 판매한다. /뉴시스

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3배 이하로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격차가 3배 이하로 좁혀졌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 현재 서울의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1642만원, 지방은 598만원으로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5년 전인 2009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이 1764만원, 지방 아파트값이 446만원으로 3.9배 차이 나던 것과 비교해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줄어든 데는 5년 전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값은 6.9% 떨어지고, 지방 아파트값은 34.1%가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면적 105㎡(32평형)를 서울에서 5년 전 매입하기 위해서는 5억 6448만원이 필요했으나 올해는 3900만원 줄어든 5억2544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5년 전 1억 4272만원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4864만원 오른 1억9136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지역별 3.3㎡당 매매가는 서울이 1642만원으로 가장 높고, 신도시 1173만원, 경기도 888만원, 인천 773만원, 부산 740만원 순이다.

전남은 3.3㎡당 42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아파트 시세로 전남의 아파트 3.8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지난 5년간 서울은 재건축 사업 부진으로 침체가 지속된 반면 지방은 세종시 광역시등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집값 격차가 줄었다"며 "올들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격차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욱기자 ***

전월세 수도권 0.4%↓ 지방 1.3%↑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올해 4월 전월세 거래 동향과 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2만9903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0.2% 증가했지만 지난 달보다는 8.7%가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의 경우 전세 거래는 감소하는 반면 월세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만7463건이 거래되어 지난해 동월대비 0.4% 감소했고 지방은 4만2440건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3%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해 동월대비 1.8% 감소, 강남3구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동월대비 1.2% 감소(5만7227건)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2% 증가(7만2676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60.0%(7만7951건), 월세 40.0%(5만1952건), 아파트는 전세 66.9%(3만8259건), 월세 33.1%(1만8968건)로 나타났다. /김유리기자 kim***

신 먹거리 VOD를 잡아라

케이블·IPTV 핵심 수익원… 속도·콘텐츠 경쟁 치열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본방 사수를 외치던 TV 시청행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만 콕 집어서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한 데다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모바일 등 IT 기기를 통해 VOD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향후 핵심 수익원으로 떠오른 VOD서비스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21일 홈초이스에 따르면 2009년 263억원에 불과했던 VOD 서비스 매출은 2013년 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작년동기 50% 이상 상승한 14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은 40%를 차지한 영화다. 그 뒤를 지상파 콘텐츠(30%)가 쫓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발맞춰 유료방송업계는 소장용 VOD, 월정액 등 고가의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B tv에서 지상파(1만3000원), 프리미어(9000원), CJ E&M(1만원), 키자은(1만원), 성인(9900원) 등 5개의 월정액 상품을 운영 중이다. 올레tv는 올레TV에서 월 14900원으로 8000편 이상의 영화와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월정액 상품인 '프라임 무비팩'과 평생 소장용 VOD 서비스 '클라우드 DVD' 등을 내놨다. LG유플러스 U+TV G는 '씨연팀' 등도 한번 만 VOD를 구입하면 서비스 해지 시까지 무제한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유지를 위해 유료방송업계는 속도, 콘텐츠 다양화 등 VOD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상파3사 등 일부 콘텐츠를 10분 이내 다시볼 수 있는 '저스트 10분' 서비스를 선보였다. LG유플러스, KT미디어허브 등 경쟁사도 유사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경쟁도 치열하다. 올레tv는 모래시계와 겨울연가, 여명의 눈동자 등 추억의 드라마 4000여편을 VOD로 제공한다. 티브로드는 자사의 다양성 영화 전용 상영관인 씨네큐브 개봉작을 VOD로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시청자의 VOD 선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방송된다. 올레tv는 드라마, 예능, 교양 등 TV 프로그램은 물론, 해외 드라마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쇼 '올 댓 TV쇼'를 제작해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가입에게 적합한 VOD를 고르는데 도움을 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업계는 VOD를 핵심 수익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과거 VOD를 단편적 결제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정액제, 소장용 DVD 등과 같은 상품 가입자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품의 다양화, 고도화를 통해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향후 방송국의 모습은 기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에서 시청자가 원할 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콘텐츠 허브' 에 이어 저작권 관리자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희기자 ssh@metroseoul.co.kr

미니쿠퍼와 유모차가 만났다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뉴 미니 디자인 & 도어 갤러리에서 네덜란드 유모차 브랜드 '이지워커'가 자동차 브랜드 MINI 미니쿠퍼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탄생한 유모차 '미니버기(MINI buggy)'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사각지대

10명 중 8명 가입 안돼

임시·일용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10명 중 2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67.7%, 건강보험 71.3%, 국민연금 68.4%였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에 그쳤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도 각각 17.1%와 21.6% 정도로 낮았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에 97.1%, 국민연금에 97.0% 가입했고 건강보험도 99%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성별로 보면 남자의 가입률은 국민연금 73.6%, 건강보험 77.2%, 고용보험 73.3%였고 여자는 국민연금 61.5%, 건강보험 63.6%, 고용보험 60.5%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직이 많은 농림어업 부문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광제조업 부문 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80%를 상회한 반면, 농림어업 부문 임금근로자는 모두 10%대 가입률을 보였다.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도 관리자는 90%대, 단순노무종사자는 30%대로 격차가 컸다.

16개 시도별로는 울산시가 국민연금 75.0%, 건강보험 77.5%, 고용보험 76.0%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국민연금 57.2%, 건강보험 58.3%, 고용보험 54.5%로 가장 낮았다.

/유주영기자 boa@

삼성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4NS 와 5층에서 삼성 갤럭시S5, 기어 핏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S5·기어핏' 이색마케팅 실시

삼성전자, 신세계百서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

삼성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와 웨어러블 기기 '기어 핏'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진행하며 독특한 마케팅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4NS 와 5층에서 '삼성 갤럭시S5+기어 핏과 신세계가 함께 최초로 선보이는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는 패션모델이 제품을 착용하고 런웨이나 화보 등을 통해 노출하는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형식으로 소비자가 패션 공간에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식의 'NBDB(Never Been Done Before)' 마케팅이다.

삼성전자는 백화점을 무대로 IT와 패션, 일상을 넘나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화점 4층과 5층의 에스컬레이터부터 매장 주변, 복도 등 소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캐주얼부터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의상을 착용한 패션 마네킹이 업무, 여행, 쇼핑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갤럭시S5'와 '기어 핏'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5층 라운지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연출됐다. 소비자가 직접 갤럭시S5와 기어 핏, 기어2를 착용하고 마네킹과 함께 앉아 갤럭시S5로 사진 촬영을 하고 인화된 사진을 받을 수 있는 포토존도 준비됐다.

주말에는 특수 분장을 하고 마네킹을 연기하는 석고마임 팀이 등장해 일상 속의 에피소드를 직접 보여 주거나 다른 마네킹과 소통하는 동작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통신 기본료가 한달 간 무료

CJ헬로비전 내달 25일까지

통신 기본료를 한달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나왔다.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서비스 헬로모바일은 다음달 25일까지 통신 기본료 한 달치를 면제해주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헬로모바일의 대표 상품인 '조건 없는 유심(USIM) LTE'의 인지도를 높이고 가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조건없는 USIM LTE는 약정기간을 없애고 요금도 절감한 요금제다. 현재 '조건없는 USIM LTE 21', '조건 없는 USIM LTE 26', '조건 없는 USIM LTE 31'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가입 방법은 헬로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한 후 유심만 교체하면 된다.

이와 함께 헬로모바일은 프로모션 기간 내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커피 상품권 1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 사이 가입하는 고객은 헬로모바일 모델로 활동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의 특별한 만남 기회도 갖는다. 7월 중순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는 이승기와 함께 하는 포토타임,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서승희기자 ssh@

30대 그룹 과징금 3년간 2조

LG 8천억으로 최다… 주요 제재 기관은 공정위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간 정부 기관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LG가 7600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컸고 1000억 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곳이나 됐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과 해외에서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했다. 이 결과 과징금·과태료는 총 309건, 2조208억 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 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30대 그룹 중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599억 원의 LG(제재 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전자는 2012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 간 담합행위로 과징금 7000억 원을 부과 받았는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으로 부터 총 323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 원과 760억 원 등 총 1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5위는 KT(1300억 원, 4건)와 현대자동차(1000억 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000억 원을 넘었다.

삼성이 955억 원, 51건으로 6위다. 이어 동부(399억 원, 14건)→동국제강(326억 원, 2건)→포스코(264억 원, 3건)→대림(263억 원, 10건) 순이었다.

LS(261억 원, 9건), 한진(250억 원, 2건), GS(198억 원, 10건), 대우건설(185억 원, 7건), 한화(156억 원, 38건) 등도 과징금·과태료가 100억 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비금전적 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

/김대규기자 kyu@metroseoul.co.kr

SKT 'T로밍 팀 실버 무한톡' 출시 SK텔레콤은 청소년과 실버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월 5000원으로 소용량 데이터 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팀 무한톡·T로밍 실버 무한톡'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한화건설, '상암 오벨리스크2차' 분양

한화건설은 상암 DMC(Digital media City)가 조성돼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에 '상암 오벨리스크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전체 732실 규모로 전용면적 21㎡ 128실, 24㎡ 553실, 26㎡ 36실, 35㎡ 9실, 42㎡ 6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상암DMC는 800여 개 기업과 6만8000여 명의 종사자가 상주해 오피스텔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화공원 조성이 예정돼있다. 평화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로 이뤄진 347만㎡ 규모의 상암월드컵공원도 인근에 위치해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등의 풍부한 도로망을 갖췄고, 공항철도, 지하철 6호선, 경의선도 이용 가능하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DMC이안상암 2단지 2층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5년 1월 예정. 문의:02-302-0700 /이완재기자

마리화나에 열쇠·살아있는 지렁이까지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에서 자동판매기가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마리화나(대마초)가 자판기에서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내놓는 낚시용 미끼 자판기도 나왔다. 최근 미 경제매체 CNN머니는 지나가던 행인의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이색 자판기를 소개했다.

◆ 양지로 다온 마리화나

지난 1월 콜로라도주에서 미국 내 최초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되는 등 마리화나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애리조나의 마리화나 판매 업체 '아메리칸 그린'은 자판기 판매까지 나섰다.

업체의 최고운영책임자 스티븐 쉐란은 "마리화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의료용에서 오락용으로 제품 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리화나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카드와 운전면허 등이 필요하다. 제품 가격은 20~100달러(약 2만~10만원)다.

◆ 지렁이 미끼 꿈틀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살아있는 지렁이도 나온다. 전직 트럭 운전수이자 어부인 개리 하셀은 "해뜬 직후에 물고기가 미끼를 잘 문다. 하지만 아침 일찍 문을 연 가게가 없어 낚시꾼들이 늘 아쉬워하더라"며 "이 모습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끼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자판기'에 지렁이와 거머리 등 살아있는 미끼를 넣어 24시간 판매를 시작했다. 낚시꾼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현재 미국 전역에는 500여 개의 미끼 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 열쇠 잃어버려도 OK

식안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뉴욕의 한 업체는 열쇠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자판기를 내놨다. 이용 가격은 20달러. 수리 업체에 의뢰해 새로 열쇠를 만드는 비용의 70~80% 수준이다.

열쇠 자판기 업체 '미니트키'는 "뉴욕시의 편의점 등에 설치된 기계에서 7개월 만에 열쇠가 1만 개나 복제됐다"며 열쇠 수리공의 앞날을 걱정했다.

마리화나 발레 슈즈 열쇠

미국 이색 자판기 눈길… 지친발 달래주는 '발레 슈즈'도 인기

◆ 자전거 자물쇠와 튜브

미국에서 '자전거족'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부품 자판기도 등장했다. 자물쇠와 튜브 등 부품은 물론 초바 같은 간식도 함께 판매한다.

판매 업체 '바이크스탁' 대표는 "자전거 이용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리에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게 부품 자판기의 최고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발 아플 땐 발레 슈즈

하이힐을 신고 걷다 지친 여성들을 위해 편안한 '발레 슈즈'를 내어주는 자판기도 있다. 이 자판기는 2006년 영국에서 처음 나온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얼마 전 미국에 상륙,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설치됐다. 가격은 한 켤레에 20달러다. 한 판매 관계자는 "검정색과 호피무늬 신발이 가장 잘 팔린다"면서 "한 달에 200켤레 넘게 팔리는 곳도 있다"고 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로봇과 농담 따먹기 해봤나요

히타치 '에뮤2' 시연 화제

SF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주인공 '범블비'처럼 농담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21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히타치는 유머감각을 갖춘 로봇 '에뮤2'(EMIEW2)의 시연회를 20일 도쿄에서 열었다. 시연회에서 등장한 에뮤2는 적색과 흰색이 조화된 키 80㎝의 귀여운 외형을 갖췄으며 다리에 장착된 바퀴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센서와 유머 센서를 탑재해 사전 원고 없이 인간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문장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해 질문 내용을 알아낸 뒤 응답하는 것이 가능한 덕분이다. 심지어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표현도 인식할 수 있다.

히타치 연구원은 "상대방과 농담을 할 분위기인지 일상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해 적절히 농담을 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뮤2의 농담 능력은 시연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히타치 연구소 직원들의 질문에 에뮤2는 "우리는 두 마리의 벡조를 갖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했다. 대화 상대가 당황한 것처럼 보이자 에뮤2는 "알이 들었어요? 농담이에요. 우리 연구소에는 약 800명이 일하고 있어요"라고 익살스럽게 받아넘겼다.

히타치는 날지 못하는 새인 에뮤와 같은 발음을 가진 에뮤2 로봇이 가정의 애완동물이나 접수담당자와 같은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차현정기자

20일 도쿄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로봇 '에뮤2'가 연구원과 농담을 나누고 있다. /AFP 제공

오바마, 美투자 외국기업 CEO 회동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 테네시주에 8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국타이어가 포함돼 이번 진 미국법인장이 참석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기업 해커와의 전쟁

피해 우려 2년새 2배 ↑ 손실 123조 육박

"우리 회사 기밀도 털리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이같은 우려를 하는 미국 기업수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 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사이버 보안 피해를 우려하는 미국 기업을 조사한 결과 1174곳에 달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519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126%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이버 공격 피해 우려가 급증하는 분야는 은행업이다. 지난 2년간 사이버 공격 관련 사례를 보고한 건수가 36건에서 81건으로 크게 늘었다. 석유·가스 생산업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례도 같은 기간 28건에서 62건으로 급증했다.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의 미국 법인인 크라이슬러는 올 3월 "빈번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SEC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기업 해킹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280억~1200억 달러(약 28조~12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중 사이버 전쟁 일촉즉발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19일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 스파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의 공격으로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 철강 업체 등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해킹 공격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118만 대에 이르는 중국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소비자 유혹하는 '시리즈 마케팅'

수집욕구 자극… 지속적인 구매 이끌어

소비자들의 수집욕구를 자극하면서 '대박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제품들이 있다. 이 제품들은 시리즈로 출시돼 하나의 시리즈를 모두 가져야 만족하거나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원하는 제품을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유통업체들은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실용적인 제품들로 시리즈를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같은 물병 다른 디자인으로 구입

락앤락이 최근 선보인 비스프리 콜렉션물병(사진 위)은 세계 문화 캐릭터 5종과 키즈 캐릭터 5종, 총 10종으로 구성돼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취향에 따라 골라 쓸 수 있다. 캐릭터마다 특색 있는 얼굴과 옷차림, 그리고 모자로 표현된 개성만점 뚜껑은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은 물론 수집의 재미까지 더해준다.

이 물병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특징은 여러 개의 물병을 산다는 것이다. 실제로 락앤락의 온라인 쇼핑몰 락앤락몰에서 콜렉션물병의 구매 성향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을 구매한 고객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여러 가지 구매해 그때그때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기에 출시 한달 여 만에 품절된 제품도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다.

◆옷으로 아티스트 디자인 소장력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디자이너 혹은 주제로 컬렉션 라인을 선보인다. 유명 디자이너나 화가, 판화 등의 패턴 및 디자인을 모두 내 옷장에 넣어둘 수 있다는 것이 유니클로 콜렉션의 인기 비결이다.

최근에는 뉴욕 현대 미술관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과 예술을 접목시킨 '서프라이즈 뉴욕(SPRZ NY)'(아래) 프로젝트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컬렉션은 유니클로의 티셔츠, 탱크탑 등 캐릭 아이템부터 파카, 크롭 팬츠, 컨버스 백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서프라이즈 뉴욕 보고 시리즈 제품을 비롯해 앤디 워홀·키스 해링·장 미셸 바스키아·라이언 맥긴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 8인과 협작한 제품을 함께 내놨다. 또 뉴욕 현대 미술관이 선별한 작품이 반영된 'MoMA 스페셜 에디션'도 판매하고 있다.

◆출시될 때마다 사 모으는 틴트

세계 최초로 틴트 제품을 만들어 낸 베네피트. 틴트 제품은 다음 제품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무조건적인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공백을 깨고 4번째 시리즈로 출시된 '플러틴트'가 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이번 플러틴트는 미국 컬러 연구소 팬톤이 선정한 2014년 트렌드 컬러인 '오키드 핑크빛'을 띠어 올 시즌 트렌드를 반영했다. 오키드 핑크는 보라빛과 핑크빛의 중간 단계의 빛으로 웜톤과 쿨톤 피부 모두 잘 어울리는 색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정혜민기자 hjune0404@metroseoul.co.kr

유통업계, '믹스매치' 열풍

카레+라면, 패션+패스트푸드 등 조합 돋보여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가 '믹스매치(mix-match)'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품을 비롯해 패션, 인테리어 등 다양한에서 의외의 조합 열풍이 거세다.

'믹스매치'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중요한 공정에서는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고 보통의 공정에서는 기존의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 경제용어로 주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다.

이를 적용한 식품업계 제품으로는 카레라면이 있다. 오뚜기 측은 국물 맛은 분말 스프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면발에 강황을 섞은 라면 면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기존 라면과 달리 굵고 납작한 면발을 채택해 카레 향이 가장 잘 배어면서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패션계에서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게 만나 재미를 주고 있다. 시넬은 패션쇼 무대를 마치 대형마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만들고, 모델들이 카트를 끌고 실제 쇼핑하는 상황을 연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패션업체 모스키노(사진)는 이례적으로 아웃인종인 맥도날드의 M을 자사 브랜드의 이니셜 보고와 조합해 옷, 가방,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패션 장르에 적용했다.

또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모던 빈티지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소비자의 호응을 얻자 침구 전문기업 이브자리는 서로 다른 색과 패턴 등을 크로스 코디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침구인 '믹스 앤 매치' 제품을 출시했다.

/정혜민기자 pms@

환절기 고민 덜어줄 비타민 화장품은?

비타민A·트러블케어엔 비타민B 추천

햇볕이 부족한 겨울에는 비타민D를 거려야 약해지기 쉬운 더운 여름에는 비타민C를 특별히 챙겨야 한다. 이렇듯 계절이 바뀌면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도 바뀌게 마련이다. 특히 환절기에는 높은 일교차로 피부 스트레스가 심해져 낮 동안의 자외선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각질을 유발하므로 각자의 피부 고민에 맞는 비타민 화장품을 찾아야 한다.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비타민A는 지친 피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피부 손상을 개선해주며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면서 표피를 두껍고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타민A는 우리의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구석구석까지 충분하게 전달해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준다. 아스트라리프트의 루나메르 크림(사진 아래)은 루나메르 라인 중 미세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제품이다. 오래된 피부 세포를 새로운 피부 세포로 교체해 칙칙함 없이 생기 있는 피부로 만들어 준다. 또 피부 유해성분을 정화해주고 세포를 활성화해 피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가꿔준다.

◆안티에이징에 비타민C 화장품

비타민C는 칙칙해진 피부를 투명하게 해주는 산화 작용으로 이미 화이트닝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C는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특징을 가져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꼽힌다.

LG생활건강의 프로스틴비타민C 컨센트레이트(위)는 합성비타민C 유도체가 아닌 순수 비타민C 성분을 15% 고농축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스틴만의 넘잠기술로 안정된 신선한 순수 비타민C가 작착하고 늘어진 피부의 안색과 탄력을 개선해준다.

비타민 B군은 피지선과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해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며 각종 공해나 스트레스, 자외선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특히 비타민 B2와 B6는 피지 분비를 조절해 여드름 생성을 막고 거친 피부에 도움을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오르비스의 '클리어 스템 비타민B'는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B를 손쉽게 보충해 체내 대사가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뷰티 푸드 제품이다. 특히 피지분비를 조절하는 비타민B2, 부족하게 되면 피부와 점막에 염증을 유발하는 B3와 B6를 공급해 성인 여드름을 예방해준다.

/정혜민기자 hjune0404@

화이트와인 강세 홈플러스가 파이니스트 와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40%를 화이트와인이 차지하며, 국내에서 인기적인 레드와인 매출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파이니스트 화이트와인의 상품수도 현재 2011년 론칭 첫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홈플러스 제공

제이컴코퍼레이션, '더스타일하우스' 오픈

캔들과 디퓨저 제품 판매

제이컴코퍼레이션은 영국 왁스 리리컬(Wax Lyrical)의 캔들과 디퓨저 제품을 판매하는 더스타일하우스(www.thestylehouse.co.k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왁스리리컬사는 영국 왕실 왕에 영예 회원으로 인체에 유해한 파라핀을 넣지 않고 천연 에센셜 오일 향을 사용하는 브랜드다. 더스타일하우스는 왁스리리컬의 캔들과 디퓨저는 물론 아토피 예방, 악취 제거를 위한 기능성 제품, 에센셜 오일 등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쇼핑몰을 내세우며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다른 쇼핑몰과의 차별점을 뒀다.

한편 더스타일하우스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대 50% 할인된 다양한 세트상품을 준비했으며 오픈 기념 가입 축하금과 적립금도 제공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주류업계, 프리미엄 맥주 출시 잇따라

오비맥주 '에일스톤' vs 하이트 '퀸즈에일' vs 롯데 '클라우드'

오비맥주 에일스톤 출시 행사 장면 오비맥주 제공

국내 주류업계가 맥주시장의 대목인 여름철을 앞두고 프리미엄 제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일부의 편견을 넘어 각 업체는 자존심을 걸고 프리미엄급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맥주의 주요 소비층인 20·30대 고객을 주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선호도는 2011년 13.7%에서 2012년 14.5%, 2013년에는 15.8%로 매해 증가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Ipsos)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성인 9620명을 대상으로 맥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20·30대의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선호도는 2011년 18.19%에서 2012년 18.90%, 2013년 20.12%로 조사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롯데주류는 유통 대기업에선 처음으로 자체 브랜드로 맥주시장에 진출해 지난달 22일 첫 제품인 '클라우드'를 내놨다.

한국을 대표하는 맥주를 선보이고자 한국을 의미하는 Korea의 'K'와 풍부한 맥주 거품을 형상화한 구름의 영문 'Cloud'를 결합해 브랜드명에 담았다.

이 맥주는 독일 등 엄선된 유럽의 홉과 효모를 사용해 만든 정통 독일식 프리미엄 라거맥주로 풍부한 거품과 진한 맛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음현장에서 생맥주와 캔맥주, 병맥주의 맛이 각각 다르다는 평이 나와 맛의 일관성과 균일성 확보는 숙제로 남아 있다.

오비맥주는 정통 영국 스타일의 프리미엄 에일맥주 '에일스톤(ALESTON)'을 지난달 1일 선보였다. 오비맥주가 자체적인 브랜드명으로 에일맥주를 선보이는 것은 처음으로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2종으로 출시했다.

에일맥주의 종주국이면서 강대국인 영국의 정통성을 표방하지만 '에일스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특색 있는 맥주로 새롭게 탄생했다.

'에일스톤 브라운 에일'(알코올 도수 5.2%)은 홉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노블 홉(일반 맥주보다 3배 더 사용)과 페일 몰트를 사용했다. 매력적인 짙은 아로마 향과 고혹적인 자주색으로 구현된 정통 영국식 페일 에일맥주다. 일반 공정에 비해 맥즙을 1.5배 이상 오래 끓이는 LTBT(Long Time Boiling Technology)공법을 활용, 노블 홉의 매혹적인 향을 최적화했다.

(사진 왼쪽부터)롯데주류의 '클라우드', 오비맥주의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하이트진로의 '에일맥주'과 '퀸즈에일'

'에일스톤 블랙 에일'(알코올도수 5.0%)은 영국산 블랙 몰트와 젠틀 홉을 사용해 흑맥주의 쌉쌀한 맛과 부드러운 거품을 함께 구현한 크리미한 흑맥주다. 특히 고온 담금 방식인 HTMI(High Temperature Mashing-In) 공법과 영국 정통 방식으로 로스팅한 블랙몰트로 블랙 에일만의 풍성한 거품을 구현해 냈다.

이 맥주는 출시 8일 만에 35만병(330㎖ 기준), 50일 만에 100만병 판매를 기록하며 맥주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9월 에일맥주인 퀸즈에일을 출시했다. 퀸즈에일은 하이트진로가 맥주연구소 덴마크 알렉시아(Alectia)와 기술제휴를 통해 3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페일 에일(Pale Ale) 계열 프리미엄 맥주다.

100% 보리(맥아)를 원료로 에일맥주의 깊은 맛과 함께 3단계에 걸친 아로마 호프 추가 공법인 '트리플 호핑 프로세스(Tripple Hopping Process)'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페일 에일 특유의 향이 진하고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퀸즈에일은 블론드 타입(Blonde Type)과 엑스트라 비터 타입(Extra Bitter Type) 등 2가지로 출시됐다. 블론드 타입은 맥아의 맛과 홉의 향이 균형감을 이룬 페일 에일의 특징을 잘 살린 제품이다. 엑스트라 비터 타입은 홉의 함량을 높여 깊고 강렬한 에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살렸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비염, 중이염에는 '통비환'과 '정이수'

곽계원 백동한의원 원장, 질환 치료 위한 다양한 약제 처방

최근 일교차와 높은 낮 기온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으로 비염과 중이염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비염과 중이염 환자들은 한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여러 약제를 통한 치료를 받는다.

그중 최근에는 내복약과 함께 투여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방 약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한방 외용약 치료의 의미로 코 안에 삽입하는 통비환(通鼻丸)이나 바르는 통비연고(通鼻軟膏), 뿌리는 상림수(桑林水) 등은 비염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또 귀에 바르는 한방 점이약인 정이수(淨耳水)는 중이염 치료를 돕는다.

통비환과 정이수 등을 직접 처방하며 비염과 중이염을 10년 이상 치료해온 곽계원 백동한의원(구 삼림한의원) 원장은 "내복약과 함께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약제를 처방하고 있다. 만약 체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탕약이나 환약을 투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illegible]

강강술래, 프리미엄 식품 불티… 전년비 30%↑

안전먹거리 선호현상 뚜렷…곰탕·육포 등 선물로 인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의 곰탕, 육포 등 프리미엄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가정의 달 선물로 안심 먹거리 선호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한우사골곰탕'은 HACCP 인증시설에서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 만들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건강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도 이물질 침입을 막기 위해 이중포장 방식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쇠고기육포 9인 세트는 [illegible], [illegible]인 선물세트는 4만428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곰탕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93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돈등심돈가스와 모짜렐라치즈돈가스, 찹쌀한우떡갈비, 죽엽자만돈너비아니가 각각 1세트씩 구성된 어린이선물세트도 40%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버블건 장난감을 선물로 준다.

한편 5월 말까지 라임나무치과 병원과 함께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어려운 이웃 3분을 선정,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주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한다.

라임나무치과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임플란트·심미보철·교정·미백·충치치료 등 분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신속한 맞춤 진단과 치료에 의한 원스톱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illegible]기자

인성내추럴, '2W 다이어트' 선봬

인성내추럴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2W 다이어트'를 출시했다.

2단계 한 세트로 구성된 이 제품은 2주 동안 체지방 감소와 함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채워 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요요 현상 걱정이 없고 원활한 배변활동까지 도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 강제 퇴근시키고 장기 휴가·여행도 보내줘요~"

대상 '이색 경영' 화제 아이디어 속출, 매출 급증으로 이어져

공자는 "사람이 예순 살이 넘으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해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 나이를 '이순(耳順)'이라고 불렀다.

국내에서 장수 기업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대상(대표 명형섭)은 올해로 창립 58주년을 맞이하며 이순(耳順)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자 말씀대로일까? 대상의 귀를 연 이색 경영이 결실을 맺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1956년 창립한 대상㈜은 이미 2009년부터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위한 변화를 시작해 왔다. 지난 반세기 종합식품회사로서의 탄탄한 입지를 다진 이 기업은 보수적인 기업분위기 쇄신을 위한 작업을 벌여 왔다.

그 첫 걸음으로 획일적인 회사 유니폼을 벗어 던졌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업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복장 자율화를 시행, 노타이에 캐주얼 복장 등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린 스타일로 출근하고 있다.

또 대상은 화목한 가정을 중시해 저녁 7시 이전 강제퇴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후 5시30분이 되면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토록 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도 저녁 7시 전까지는 무조건 퇴근해야 한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사장이 직접 나서 정시퇴근제 실천 여부를 점검한다. 누적된 정시퇴근 현황 자료는 연말 인사고과와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대상(주) 청평의 어린이집 가족지원프로그램 /대상 제공

또 이 기업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모든 직원이 5시30분 정각에 일제히 퇴근하는 '가족사랑데이'를 벌이고 있다. 매달 말일이 되면 전국의 영업조직은 오후 2시에 실적을 사전 마감하고 이 시간이 되면 사무실의 모든 전원과 PC를 끄고 퇴근해야 한다.

이 밖에 사원 개개인의 휴식과 안정을 통한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 5일 이상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리프레쉬데이 급 의무화하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직원들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정원 어린이집도 개원했다. 올해 3월에는 경기도 인근에 주말농장을 마련해 임직원 50개 가족에 분양했다.

특히 이 회사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3~4명 단위의 팀을 만들어 해외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는 반기별 1회에 걸쳐 4~5개 팀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의 해외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ACE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010년 시행 후 지금까지 총 200여명의 직원들이 해외여행 지원을 받아 호평을 얻고 있다.

가족친화경영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한다. 하지만 긍정의 마인드는 성과로 이어져 2009년 이후 매출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9203억 원으로 떨어진 대상의 연간 매출은 정시퇴근제도의 원년인 2009년에 1조90억원으로 식품업계 1조 클럽에 재진입했다. 2013년에는 1조5703억원(연결기준 2조5423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과 업무집중 덕분이라고 회사 측은 보고 있다.

홍보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창의력은 2009년에 현실화 돼 주력 제품인 고추장의 주원료를 밀가루에서 우리 쌀로 바꾸는 혁신을 이뤄냈다"며 "카레나 수프 등 우리 쌀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밀가루 사용을 줄이면서 급등하는 국제 밀가루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식품 분야 원인여의 상승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고구마츄, 컵국밥 등 창의력을 발휘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돼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귀띔도 했다.

이 회사 명형섭 사장(사진)은 "성공적인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창의력인데,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력은 화목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현재 사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다이어트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 임직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달기자 pmw@metroseoul.co.kr

초여름 필수 아이템, 피케셔츠로 '쿨'하게

지난 21일은 봄에서 여름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소만이었다.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며 가볍고 시원한 패션 아이템인 피케셔츠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피케셔츠는 처음 스포츠의류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골비즈 룩이나 리조트 룩, 나들이 룩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어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단일 색상의 솔리드 피케셔츠는 단정하면서도 자연한 옷차림을 연출하고 싶을 때 안성맞춤이다. 자칫 단조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지만 카라나 소매끝단에 포인트 배색을 가미한 셔츠를 선택하면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피케셔츠의 경우 편안하게 입는다고 품이 넓거나 큰 사이즈를 선택하면 자칫 촌스러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일 수 있다. 가급적 체형에 맞춰 딱 떨어지는 스타일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함께 입을 팬츠는 밑단을 살짝 올린 롤업 스타일로 연출하고 보트슈즈나 슬립온을 매치하면 여심잡는 남성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줄무늬나 패턴이 들어간 피케셔츠의 경우는 몸집이 크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남성이라면 최대한 선이 가는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굵은 스트라이프는 자칫 나온 배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경쾌한 느낌의 피케원피스 아이템을 눈여겨 볼만하다.

/김학철기자

5월을 알차게… '알뜰 이벤트' 다양

무료 와인 제공, 면세점 골드카드 발급 등

각종 기념일 많았던 5월,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월말이 다가왔다. 남은 기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한다.

캐주얼 스파클링 와인 '베니니(Bennini)'는 5·6월 두 달 동안 영화 속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이색 이벤트를 벌인다. 이번 이벤트는 멀티관 CGV의 골드클래스 5개 지점에서 1만5000원에 페퍼로니 또는 베니 갈릭 피자와 베니니 2병을 제공받을 수 있다. 4위드쉐프에서는 웰컴 드링크로 베니니가 증정된다.

신라 인터넷 면세점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신혼부부 혜택 패키지인 'We Got Married'를 펼친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청첩장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된다. 본래 이 면세점의 골드카드 발급은 3000달러 이상 구매 시 발급되며 쇼핑 때 최고 15% 할인 혜택을 받는다. 행사 참여 후 결제 시 즉시할인 가능한 마일리지와 웨딩 쿠폰 6종도 함께 증정된다.

애경의 메이크업 브랜드 '루나'는 오는 30일까지 유용하게 사용되는 메이크업 제안 기획전을 연다. 캠퍼스 여신으로 등극하는 메이크업 비법과 로맨틱한 드라마가 현실이 될 수 있는 데이트 메이크업, 5월 하객을 위한 메이크업 방법 등을 소개한다. 최대 1만원~1만1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김현일기자

토니모리, '토니유니 서포터즈' 모집

토니모리(사장 오세민)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토니유니(TONYUNI)' 2기를 모집한다.

토니모리에 애정이 있는 적극적인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2기는 6개월간 토니모리 신제품 품평과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월별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토니모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총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황혜진기자 hjuna0404@

"을수로 살다보니 눈매도 달라졌죠"

영화 '역린'의 슬픈 암살자

조정석

배우 조정석(33)은 '정석'이라는 이름과 달리 자유 분방한 연기자였다. 영화에서 특색 있는 인물을 그린다. '건축학 개론'(2012)의 납득이는 허당 연애 고수였고, '관상'(2013)에선 코믹하면서도 조카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지닌 팽헌 역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렸다. 올 해 '역린'으로 말보다는 눈빛과 표정으로 조선시대 슬픈 살인마 을수로 돌아왔다.

◆ 영화 '역린' 만족스럽나?

영화가 관객에게 공개됐을 때 호불호가 분명했다. 나 자신은 만족한다. 많은 이야기를 담기엔 상영시간이 부족했고 편집은 어떤 영화든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정말 매력적이었다. 실존과 허구가 얽혀 있는 구성력이 재밌었다. 영화를 본 지인들은 '정조도 을수도 모두 주인공 같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처럼 등장 인물, 각자의 이야기로 영화가 짜여 있는 점이 '역린'의 강점이다.

◆ 을수는 살인을 위해 길러진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다.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감정 흐름을 따라 가려고 했고 대본에 드러나지 않은 공백을 상상했다. 인물을 연기할 때 극 사실주의적으로 파고 든다.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목표를 지니고 있는지 등에 집중한다. 을수로 살면서 내 눈매가 달라져 있다는 걸 문득 느꼈다.

◆ 냉혈한이 월혜(정은채)에게 첫눈에 반하는 설정이 와 닿지 않았다

을수와 월혜의 첫 만남이 편집됐다. 그 장면에서 을수는 떨린다. 사람은 밤에 본 사람이 사랑을 준다는 말이 있지만 을수는 다르다.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광백(조재현)에게서 월혜를 지키기 위해 정조를 암살하러 간다. 낭만적이지만 월혜에게 만큼은 예외다.

◆ 정조를 암살하는 장면을 오래 찍었다고 했었다

존 살에서 안에 있는 정조를 보러 가기까지 긴박한 장면을 20일 정도 찍었다. 겨울이라 추웠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분장이었다. 사람들이 대걸레 머리라고 부르는 긴 머리와 수염, 피 묻은 얼굴 등을 갖추는 데 2시간 가량 걸렸다.

◆ 정조 역할도 어울릴 것 같다

시나리오를 보면서 현빈이 맡은 정조와 정재영의 갑수 역할이 모두 탐났다. 개봉 후 무대 인사를 돌면서 '역린'을 다시 봤다. 누구나 처음엔 자신이 맡은 인물 위주로 본다. 그런데 여러 번 보면 작품과 다른 배우들의 연기를 비교하는 큰 눈이 생기게 된다. 특히 현빈이 연기한 정조는 정말 그 당시에 그랬을 거 같다. 그 동안 정조를 연기한 배우는 많았지만 곧건하고 강직하며 약한 모습을 갖추려는 정조가 진짜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말보다 눈빛 표정으로 전작과 차별
마지막 연애 3년전, 유부남 부러워
뮤지컬 '블러드…' 7세 꼬마역 연습

◆ 현빈의 몸 근육이 화제였다

을수는 노출 장면이 없어서 다행이다. 동네에 있는 진짜 싸움꾼들은 을수처럼 아무 것도 없다. 날 것의 액션을 하는 을수를 만들고 싶었다. 전문적으로 검술을 하는 것보다는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

◆ 현빈보다 몸이 별이서 죽은 것 같다

팔 길이 메기는 정말 많이 들었다. 솔직히 내 신체에 비해선 팔이 긴 편이다. 물론 현빈보다는 짧다. (하하)

◆ '역린'으로 변신하고 싶었다

아니다. 영화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로 많이 기억해 준다. 영화 '관상'에도 조선 판 납득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변신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출연하지 않는다. 역할에 충실 할 뿐이다. 공연을 10년 했다. 바람둥이부터 순수남, 열등남, 순결남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재밌고 즐거우면 한다'는 룰이 생겼다. 나중에 납득이 같은 역할을 또 할지도 모른다. 욕해도 어쩔 수 없다.

◆ 영두에 둔 차기 작은?

노르웨이... 지금은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만 생각하고 있다. 7살 꼬마 역할인데 매일 밤 늦게까지 연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 연애할 시간이 없겠다

마지막 연애를 한 건 3년 전이다. 영화 '건축학 개론' 이후부터 쉰 적이 없다. 친구들이 결혼하거나 애 낳는 거 보면 부럽다.

◆ 영화계 블루칩이 됐다

행복하다. 신세 진 사람에게 보답할 때란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내 위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민효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아바걸스 서울·부산서 공연

그룹 아바(사진)의 헌정밴드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국의 아바걸스가 국내에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아바걸스는 아바의 국제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아 30~31일 강동아트센터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헌정밴드는 특정 뮤지션의 음악과 스타일 등을 재현하는 밴드로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해온 아바걸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헌정밴드다.

이날 공연에서 이들은 '맘마미아' '머니머니' '아이 해브 어 드림' 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아바의 히트곡 20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제작사 허리케인INC는 "아바걸스 밴드 멤버들은 세월호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 공연에서 추모의 의미로 '더 웨이 올드 프렌즈 두' 를 들려드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바걸스는 서울 공연에 앞서 28일 부산 KBS홀에서 공연한다.

/장소영기자 sunnie

신민아 "복귀 고민 많았다"

5년 만에 영화 '경주'… 박해일과 4년 만에 재회

영화 '경주'로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신민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심을 내비쳤다.

2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경주'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신민아는 "오랜 만에 영화에 복귀하면서 고민이 많았다. 기존에 보이지 않은 모습을 내비치고 싶은 욕심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이번 영화를 연출한 장률 감독의 전작 '두만강'을 유심히 봤다.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감정이 전해지는 것이 흥미로웠다"며 '경주'에 출연한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영화 '10억' 이후 4년 만에 신민아와 재회한 박해일은 "신민아가 20대 때와는 다른 30대 여배우의 성숙미를 잘 보여줬다. 나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또 "장률 감독의 영화 '이리'에서 주연을 맡았던 윤진서씨와 친분이 있다"면서 "그에게 '경주' 시나리오를 건네받아 참여하게 됐다"고 윤진서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경주'는 7년 전 춘화를 찾는 수상한 남자 최현(박해일)과 찻집 주인인 공윤희(신민아)의 설레는 만남을 경주를 배경으로 그린다. 다음달 12일 개봉.

/박정환기자

21일 영화 '경주' 제작보고회 참석한 신민아(왼쪽), 박해일 /연합뉴스

잔잔한 전개 속 강렬한 힘

film review
/박정환 기자 metroseoul.co.kr

칸 초청작… 섬세한 연출·연기 돋보여

■도희야

22일 개봉한 '도희야'는 잔잔한 전개 속에서 강렬한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줄거리는 말못할 사건으로 바닷가 마을에 좌천돼 내려온 파출소장 영남(배두나)이 학교에선 왕따를 당하고 집에선 의붓아버지 용하(송새벽)의 폭행에 시달리는 14세 소녀 도희(김새론)와 만나 벌어지는 일이다.

내용의 줄거리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인다. 화려한 영상이나 폭발적인 감정도 없고 배우들의 대사도 많지 않다. 영화는 배경이 된 외딴 바닷가 마을처럼 조용하다.

그러나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은 예사롭지 않다. 사회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져 깊은 울림을 준다.

'도희야'는 정주리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바닷가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정감독은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말하고자하는 바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열연이 영화의 완성도를 한껏 높였다. 배두나는 정적인 캐릭터를 섬세한 눈빛과 표정 연기로 표현하여 두 시간의 영화를 이끌어가는 내공을 보여줬다. 김새론은 어린 나이에 좀처럼 해내기 어려운 배역을 다양한 감정으로 소화해 배우로서 한 뼘 더 성장했음을 증명했다. 그동안 코믹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긴 송새벽의 인체적인 악역 변신도 큰 잔을 배웠다.

결론을 말하면 제67회 칸 영화제의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수작이다.

'해적' 칸 마켓서 15개국 선 판매

해외 바이어 "오락·대중성 갖췄다"

김남길·손예진 주연의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이 제67회 칸 영화제 마켓에서 15개국에 선 판매됐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올 여름 개봉 예정인 '해적'이 미국·캐나다(북미 지역)을 비롯해 일본·독일·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폴란드·대만·태국·인도·남미·미얀마 등에 판매됐다"면서 "올해 해외에 판매된 한국 사극 영화 중 가장 많은 국가에 선 판매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 세력간의 대격전을 그린 초대형 액션 어드벤처물이다.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문 티저 트레일러를 통해 작품을 확인한 해외 바이어들은 "젊은 영상임에도 완벽한 컴퓨터그래픽(CG) 품질과 규모감, 화려한 액션신이 영화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칸 마켓에서 본 여러 한국 사극 블록버스터 중 가장 오락적이고 대중에게 어필할 만한 영화"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칸 영화제 기간에 발행되는 영화 전문지 스크린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소개된 손예진의 '해적' 캐릭터 포스터도 화제를 낳았다. 해적단 두목 여월 역을 맡아 고난이도 액션에 도전한 손예진은 이 포스터에서 해적 복장을 한 채 장검을 들고 강렬한 인상을 뿜어냈다.

/박정환기자

"시청률 1위 하면 비키니 입고 길거리…"

(왼쪽부터) 모델 송경아 가수 아이비 모델 아이린 /개선현

'파워블로거' 아이비, 뷰티 멘토 변신 패션앤 '팔로우미 3' MC 여심 공략

파워블로거로 유명한 가수 아이비가 여성들의 뷰티 멘토로 변신한다.

아이비는 21일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열린 패션앤 '팔로우미 3'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게 된 모델 송경아·아이린과 각오를 다졌다.

이날 아이비는 "패션 뷰티 프로그램 MC를 정말 하고 싶었다"며 "제가 입은 옷이나 직접 써본 화장품을 블로그에 공개했더니 모두 완판 됐다. 3년 반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니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 생얼 공개는 물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팔로우미 3'에 아낌없이 쏟아 부을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이비의 블로그는 약 1400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지난 2012년 파워블로그로 선정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패션 뷰티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팔로우미 3'만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비는 "우리 세 사람이 직접 사용해보고 솔직한 평가를 내릴 예정"이라며 "제모기 체험을 해야 하는데 한증에 털이 좀 난다. 첫 회에서 제모기로 수염을 지게될 생각"이라고 말해 망가져서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내비쳤다.

아이비와 함께 '팔로우미 3'의 MC로 낙점된 송경아와 아이린도 모델 활동을 통해 쌓은 몸매와 피부 관리 비법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송경아는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 번 '팔로우미'의 진행을 맡게 됐다. 그는 2007년 엠넷 '트렌드 리포트 필'을 이끌며 재치 넘치는 입담과 모델다운 패션 감각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이후 꾸준히 패션 뷰티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약 중이다.

송경아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 길거리에서 워킹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이에 아이비는 "비키니를 입고 걷자"고 제안해 두 사람을 당황케 했다. '팔로우미 3'의 막내이자 20대 여성의 패션과 뷰티를 맡게 된 아이린은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한편 패션·뷰티·라이프를 총 망라한 다양한 아이템과 정보를 제공하는 '팔로우미 3'는 오는 28일 자정에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email) metroseoul.co.kr

단발머리 '제2의 크레용팝'

소속사 후배 걸그룹 내달 데뷔

걸그룹 크레용팝의 동생 걸그룹 단발머리(사진)가 출격한다.

21일 크롬엔터테인먼트는 단발머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크레용팝에 이어 크롬엔터테인먼트의 두 번째 걸그룹 '단발머리'가 6월 중 가요계에 정식 데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발머리는 다예·유정·지나·단비로 구성된 4인조 걸그룹. 눈에 띄는 비주얼은 물론 수준급의 보컬 실력과 댄스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팀명 그대로 멤버 모두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속사 관계자는 팀명을 단발머리로 정한 이유를 "일반적으로 여성이 긴 머리를 단발로 싹둑 자르면 외모의 변신은 물론 심적인 변화도 있다고 생각하듯이 단발머리는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변신과 변화'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다양한 변신과 변화를 통해 독특한 개성과 고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단발머리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단발머리의 타이틀곡은 은종태가 맡았다.

은종태는 EA의 '영웅서기 온라인', '레전드 오브 마스터' 등 유명 게임의 음악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은종태는 윤미래가 불러 지난해 히트곡 중 하나 드라마 '주군의 태양' OST인 '터치 러브'와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꽃보다 남자' OST)'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했다.

/양성운기자 ysw@

발리의 여신 손담비 손담비가 발리 해변을 배경으로 섹시 퀸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패션지 '인스타일' 6월호 화보 촬영에서 그는 매혹적인 메이크업과 구릿빛 탄력 있는 피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보 촬영에 함께 했던 관계자는 "보정이 필요 없는 완벽한 몸매"라며 극찬했다. /유순호기자

박유천, 거미 새 앨범에 피처링

거미의 새 앨범에 박유천(사진)의 목소리가 담겼다.

박유천은 다음달 9일 발매되는 거미의 새 미니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조에름의 쉼그러운 멜로디가 포인트인 레게 스타일의 곡에 목소리를 더했다. 애초 이 곡에 남자친구 역할의 내레이션을 맡기로 했던 박유천은 녹음 현장에서 노래를 듣고 작업하던 중 즉석에서 피처링 작업까지 하게 됐다.

거미와 처음 작업을 한 박유천은 "평소 편안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인디 음악을 즐겨 듣는데 이번 피처링에 참여한 곡 역시 그런 느낌의 곡"이라며 "나들이 가고 싶게 하는 밝은 곡이라 신나게 녹음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유천은 JYJ 다른 멤버들과 달리 팀 활동 외에는 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번 앨범에서 오랜 만에 들려줄 음악이 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년 만에 발매되는 거미의 새 앨범에는 휘성과 화요비의 자작곡이 실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여기에 박유천의 피처링 소식까지 더해지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한화리조트 다양한 행사 '고객 유혹'

어린이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업그레이드된 63씨월드도 볼거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5월 나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체험하며 즐기는 프로그램 가득

먼저 한화리조트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과학 체험극 '사이언스린'으로 한화리조트는 4월 한화리조트 양평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전국의 한화리조트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공기대포 촛불 끄기 ▲드라이아이스 풍선 쭈틴 ▲액체 질소 풍선 마술쇼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또 한화리조트 조리장이 직접 참여하는 가족 요리교실인 '케익 만들기 체험'(사진)도 나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매주 토요일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와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그리고 한화리조트 양평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설악 쏘라노의 '반지 부채 만들기', 한화리조트 신정호수 인사의 '가족 사진 이벤트'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가득하다.

◆새로움이 넘치는 63씨월드

이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63씨월드는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이며 업그레이드를 시도했다.

우선 ▲데워는 뽀로로 ▲파도타는 뽀로로 ▲지 나는 뽀로로 등 총 8개의 대형 뽀로로 입체 포토존을 수조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뽀로로 테마전'이 개최된다.

또 63씨월드 지하 2층 정글존도 대폭 업그레이드돼 관람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청금강앵무, 썬뉴코어 등 9종 50마리의 화려한 앵무새가 모여있는 '앵무새존'이 새로 오픈됐다. 검거두쥐와 프레리독, 친칠라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설치류 동물도 구경할 수 있다.

이외에도 5월 한 달간 63빌딩 현장 매표소에서 롯데카드로 '63빌딩 BIG3 패키지'를 구입하면 본인은 1만원에, 동반 3인은 30% 할인된 가격으로 63씨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4일 전국 한화리조트 및 춘천 제이드가든 수목원에서는 '제1회 전국 한화리조트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린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라뱃길서 한바탕 놀고 축구보러 가자~

인천 AG 주경기장서 다음달 1일 축구 평가전 열려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무료셔틀버스 운행돼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축구경기도 보고 아라뱃길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완공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서 다음달 1일 한국과 쿠웨이트의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평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는 경기장 개장 이벤트 성격으로 열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경기장 인근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돼 수도권에서도 쉽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검암역에서 5분만 걸으면 최근 나들이 장소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인 아라뱃길을 만날 수 있다. 경기 관람 후 아라뱃길을 찾으면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역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경기 전에는 산책은 물론 가족이나 연인과 자전거 하이킹도 즐길 수 있다.

5층 규모에 6만2818석의 관람석이 있는 주경기장은 아시안경기 하이라이트인 개·폐막식과 육상 경기가 열린다. 게다가 외관은 동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비상하는 '춤추는 인천'을 형상화하고 있다.

/동재현기자

나들이 장소로 알려진 아라뱃길(위)과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

관광공사 새 비전 발표…가수 알리 사회공헌대사 임명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최근 관광공사 TIC상영관에서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KTO 비전 나눔식'을 열었다.

관광공사의 새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만들어나가는 국민기업'이다. 국내외 여행객, 관광업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행복을 중시하고 창조관광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의미한다.

또 관광공사는 국민 모두가 관광으로 행복하고 관광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창조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 사업 추진 방침으로 ▲변화 ▲소통 ▲상생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관광공사는 ▲국민행복을 위한 관광 활성화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 ▲관광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첨병 역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적으로 정부 3.0에 대응하는 '관광 3.0'이라는 창조 솔루션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10대 과제를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는 관광 유관기관, 학회 및 업계, 관광공사 임직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기 가수 알리(ALi)는 관광공사의 사회공헌대사로 임명됐다. 임직원들은 공사와 함께하는 개인 비전과 CEO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적어 비전트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황재용기자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7명, '한국 불안해'

1위는 전쟁 위협…여행 중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도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7명이 한국의 안전을 불안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은 외국인 설문조사 기관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2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56명(67%)이 한국의 안전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여행의 안전도를 상·중·하로 묻는 질문에서도 과반수 이상인 64%(148명)가 하를 택했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전쟁 가능성 ▲안전사고 ▲노노 ▲언어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사인물을 통한 신고방법의 안내와 홍보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재용기자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호텔

내국인 고객 늘어나자 다양한 변신

호텔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내며 문화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내국인이 새로운 호텔 소비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고객들이 쉽고 편안하게 호텔을 방문할 수 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댄스·문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준비

먼저 The-K호텔서울은 지난 9월 컨벤션센터를 개관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음가넉'을 주제로 한 'The K-스타일페스티벌'을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각종 국내외 세미나와 학술대회는 물론 '스트릿 올 라운드 챔피언십', '2014 코리아 오픈 국제 댄스 챔피언쉽'(사진) 등을 개최했다.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은 지하 1층에 문화시설을 조성했다. 종로구와 문화시설 무상 사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20년간 호텔 지하 1층에 국악 공연, 전시를 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연계된 파티와 행사도 준비된다.

이와 함께 반얀트리는 꾸준한 음악·댄스 공연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재즈 인 더 시티'를 비롯한 재즈공연이 대표적이다. 오는 29일에는 독특한 클래식 선율과 함께 열정적인 탱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탱고 인 오아시스' 공연이 열린다.

또 서울 프린스 호텔은 젊은 문학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 객실 1~2개와 제주 남원읍에 있는 숙소 1, 2개 동에 작가들이 머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호텔 별관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작가 초청 강연회와 낭독회도 열고 있다.

/황재용기자

"좋은 경기로 성원에 보답"

박지성 고별전 아름다운 마무리 각오

박지성(33)이 아름다운 이별을 예고했다.

한국 팬 앞에서 고별 무대를 앞두고 있는 박지성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PSV 에인트호번 코리안투어 기자회견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다"며 농담을 던지면서도 "현역 마지막인 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진지하게 각오를 전했다.

22일 수원 삼성, 24일 경남FC와 차례대로 경기하는 박지성은 "현역으로서 국내 팬에게 보여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상당히 기대된다. 잘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빡빡한 경기 일정 탓에 풀타임 출전은 힘들지만 45분 정도는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후배들을 향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당시엔 내가 막내여서 선배들이 팀을 이끌면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됐다"며 "반면 이번 월드컵에는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가 많이 없어서 선수들 각자 책임감을 느끼고 팀과 동료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에르네스트 파버르 에인트호번 코치는 "박지성과 함께 선수로 뛰었던 게 영광이고 박지성을 지도한 것도 값진 경험이었다. 박지성은 대단한 선수고 모든 것을 불태운 에너지 넘치는 선수였다"고 칭찬했다.

이어 "박지성이 은퇴하는 건 에인트호번으로선 슬픈 일"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순호기자 suno@

박지성이 21일 관산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포츠 클럽 PSV 에인트호번 창단 100주년 기념 행사 및 팬미팅에서 크로스바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절친' 우리베 없이 복귀전

햄스트링 결장 가능성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4일 만의 복귀전에서 '절친' 후안 우리베(35·사진)의 든든한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베는 21일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뉴욕 메츠와의 방문경기에서 7번 3루수로 선발 출장해 9회초 2루타를 친 후 주루 과정에서 오른쪽 햄스트링에 이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우리베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지난번 부상보다 정도가 심하다고 전했다. 당시 부상으로 5일 쉰 우리베는 이번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건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은 우리베가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22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은 주전 3루수이자 심적 안정을 주는 절친한 동료 없이 복귀전을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1일

■포항

팀	1-3	4-6	7-9	계
롯데	102	010	100	5
삼성	100	230	01X	7

[illegible]

■목동

팀	1-3	4-6	7-9	계
한화	010	111	005	9
넥센	000	111	103	7

[illegible]

■광주

팀	1-3	4-6	7-9	계
LG	100	000	300	4
KIA	000	000	000	0

[illegible]

■마산

팀	1-3	4-6	7-9	계
SK	421	002	010	10
NC	010	001	000	2

[illegible]

잦은 오심 얼룩진 프로야구

선수·팬 불만 넘어 분노 폭발
비디오 판독 확대 요구 높아

프로야구 오심 시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수들은 물론 야구팬들도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한화의 경기에서는 4회말 넥센 박헌도의 희생플라이로 넥센이 득점한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 중계의 느린 화면으로 보면 한화 포수 정범모가 송구를 받아 넥센 3루 주자 김민성이 홈을 밟는 것을 가로막았지만 주심은 세이프를 선언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린 KIA와 LG의 경기에서도 아웃과 세이프가 리플레이에서 보인 것과 반대로 판정되는 사례가 나와 심판 판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프로야구에서 판정이 구설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이 여러 차례 나와 각 구단 감독들이 항의하거나 비판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다시 올 시즌 초부터 판정이 이슈가 되면서 오심이 나올 때마다 예전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KIA-SK전에서는 심판이 경기 도중 질병을 사유로 교체되는 흔치 않은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한 30대 남성 관중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박근영 1루심을 공격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최근 들어 숨은 일꾼이 되어야 할 그라운드의 판관들이 화제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잦다.

논란은 '비디오 판독 확대'로 귀결되곤 한다.

마침 미국 메이저리그가 올해부터 국한되던 비디오 판독을 아웃·세이프 등 여러 분야로 확대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추세를 따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장 오심으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각 구단 사령탑들은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비디오 판독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내놓고 있다.

오심으로 얼룩진 프로야구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어떤 해법으로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유혜선기자 yhs@metroseoul.co.kr

20일 오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넥센과 한화 경기. 4회말 무사 1·3루 넥센 박헌도의 희생플라이 때 3루 주자 김민성과 포수 정범모의 충돌 상황에 대해 이영재 구심이 세이프를 선언하자 포수 정범모 등 선수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지옥훈련 돌입

휴식 끝… 약점 지목된 세트피스 강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본격 담금질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처음 소집된 홍명보호는 K리거 6명과 부상 등으로 미리 귀국한 해외파 3명 등 9명의 선수로 첫 훈련을 시작했다.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4인방이 가세하면서 점차 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갔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활약 중인 아시아리거들도 휴가기간 대부분 귀국했다. 21일 오전 김진수가 입국하면서 홍명보호 최종엔트리 23인 가운데 윤석영을 제외한 22명 모두 대표팀에 합류했다.

윤석영은 소속팀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오는 24일 더비카운티와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라 그 경기를 치르고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호는 소집된 이후 6일 동안 컨디션 회복과 부상 재활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해왔다. 훈련이라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운 각종 훈련으로 선수들끼리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18일부터 20일까지 선수들에게 2박3일의 달콤한 휴가를 선물했다.

그러나 어제부터 지옥훈련이 시작됐다. 홍 감독은 지난 15일 "다음 주부터는 경기 형태의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며 실전 분위기에 성큼 다가선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홍명보호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세트피스 대비 훈련도 곁들일 계획이다. 그 어떤 훈련보다 선수들 간의 '합'이 중요한 세트피스이기에 결코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게 홍 감독의 생각이다.

홍 감독은 "세트피스는 한국이 골을 가장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지난 평가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있다. 세트피스 준비는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illegible]기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15일 오후 파주 NFC(국가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훈련 지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센텀 비스타 동원 당첨자 공고
문의 051)469-0111
특별공급당첨자
정당당첨자
예비당첨자